

‘정청래號’ 민주당, 호남 인식·대우 “확 바뀌었다”

특위 구성·지명직 최고위원·현장행보
광주·전남 ‘힘 실어주기’ 개혁 속도전
수해 복구·첫 현장 최고위 전남 개최
최고위원들, 관심·지원 한목소리 약속

‘전광석화’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의 호남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과거와 달리 “확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2일 당선된 이후 ‘검찰·인론·사법’ 개혁을 추진할 특별위원회 구성,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첫 현장행보 등에서 일관되게 광주·전남에 힘을 실어주는 ‘개혁 속도전’을 과감하게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3편

실제 정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틀 뒤인 4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광주 재선 민형배 국회의원을 (광주 광산)을 임명했다. 검찰개혁특위는 인론·사법개혁 특위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개혁 과제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권이 사활을 거는 특위의 ‘얼굴’에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명한 전례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정 대표의 용인술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어 정 대표는 다시 이틀 뒤인 6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3선의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



무안 수해지역 찾은 鄭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일 무안군의 수해 지역을 찾아 김산 군수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무안=김상호 기자

안)을 지명하고, 신설한 민주당 호남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겸임하도록 해 호남의 목소리를 당 지도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중책을 맡겼다.

3선 의정활동 기간 동안 오로지 국회 농해수 위 소속으로 활동하며 농어업과 농어촌 분야에 특화된 서삼석 의원을 과감하게 최고위원과 ‘호남특별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그동안 홀대받 아 온 호남과 농어업 분야에 대한 배려라는 분석

이 나온다.

정 대표의 주요 현장 활동도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 정 대표는 당선 하루 뒤인 3일 여당 대표로서 첫 외부 일정으로 나주 수해 현장을 방문, 복구 활동을 벌인데 이어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도 8일 무안 소재 전남도당에서 개최했다.

특히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1980년 5·18 민주화 운동부터 지난해 12·3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호남 민심이 민주주의 수호의 바탕이 됐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호남 지역 발전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 이틀도 없이, 빛도 없이 스러져 간 광주 영령들의 공이 컸다”며 “이런 광주에

대해 특별한 보상이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에 민주당이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 교통망 확충 등 호남의 숙원 사업이 호남발전특위를 통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향후 특위의 역할을 규정했다.

이 같은 정 대표의 행보를 반영하듯 출신지가 다른 최고위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호남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경남)는 “호남은 윤석열 내란을 막아내고 탄핵 민심을 끌어냈다. 호남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환경 선도 사업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현희 최고위원(경남)도 “호남은 늘 저에게는 정치적 고향이고 마음의 고향”이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민주화영령들의 정신을 끝까지 추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경북) 역시 “(5·18 당시) 총칼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던 광주시민의 외침이 아직 귓가에 생생하다”며 “민주당은 광주 호남 정신으로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충남)은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오래 서듯 민주당도 이 땅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며 “지도부 일원으로서 전남·광주를 발전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진수 기자

李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 직보하라”

휴가 끝내고 업무복귀 첫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부터 닷새간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와 관련,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산재 사고와 관련한 지시 사항을 급하게 전달했고 이에 대한 브리핑도 지시했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브

리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2개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휴가 직전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엔씨 작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김진수 기자

세계 女프로골프 톱랭커 10월 해남 총출동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10월16-19일 ‘파인비치’ 개최 확정
6만명 방문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세계 여자 프로골프 톱랭커들이 오는 10월 해남에서 기량을 겨룬다. 대회 기간 동안 총 6만여명의 선수·갤러리가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업무협약을 통해 세계적인 골프 명문 대회인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전남 개최를 확정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명창환 행정부지사, 명현관 해남군수, 박지원 국회의원, LPGA, BMW Korea,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주요 관계자들이 참

석했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LPGA 정규투어로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계 여자 골프계를 주도하는 LPGA(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주최하고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BMW KOREA가 주관한다. 갤러리를 비롯해 선수·스태프 등 약 6만명의 국내외 방문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전남 관광지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한층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산업 육성의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명창환 부지사는 “LPGA 정규 투어 유치로 전남 관광자원과 국제행사 개최 역량이 다

시 한 번 입증됐다”며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로 전남 해남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골프 명소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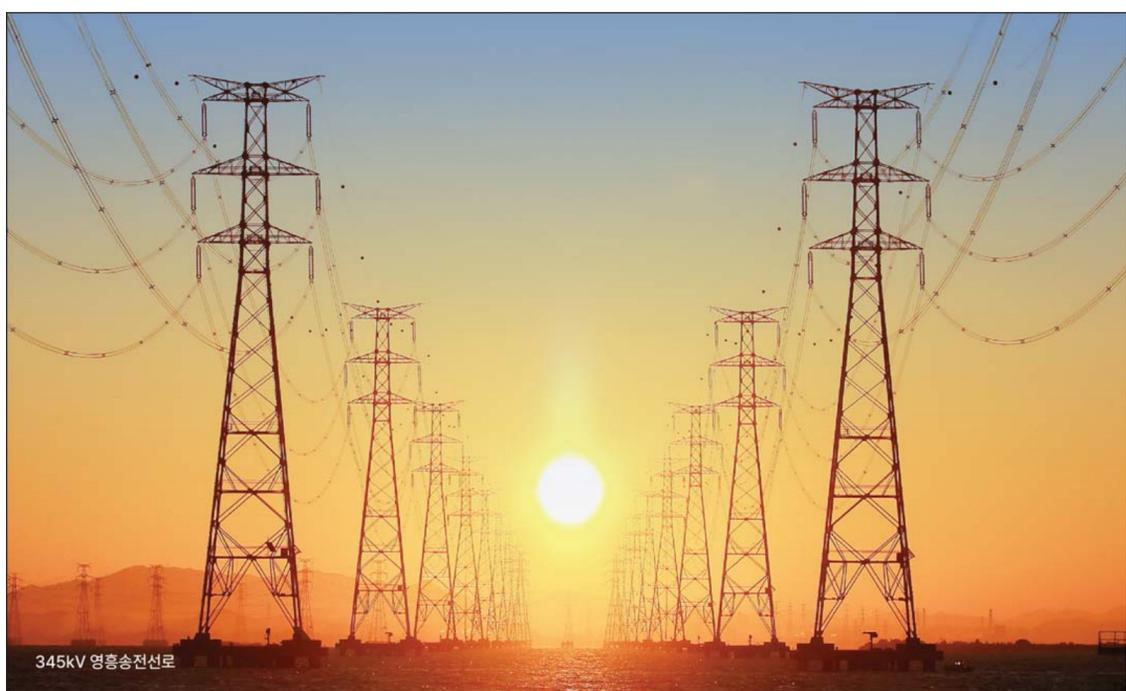
전남도는 이번 대회 외에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국제 철인3종경기대회,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Today

‘국내 1호’ 광주 정책들 전국 모델 확산 2편

휴경기 끝 광주법원 주요 재판 ‘속도’ 6편

세번째 햄스트링 부상 김도영 ‘시즌아웃’ 16편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전력망 확충으로 시작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을 위한
충분한 전력망 구축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